

# 상무지구 '물순환 공사' 내년 하반기 착공

### 환경부 시범사업...295억원 들여 투수면적·녹지 공간 확대 기본계획 확정...광주시 전역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박차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뒤덮인 광주 상무지구 일대가 물순환선도도시로 탈바꿈한다. 현재 상무지구 일원(2.1㎢)의 91%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지역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난리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최근 물순환위원회를 열고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내년 하반기 상무지구 일원에 대해 공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총 295억원(국비 207, 시비 88)을 투입해 현장여건에 따라 빗물이 침투하고 저류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식생 체류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나무여과상자 등 저영양개발(LID) 기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해 현재 상무지구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다.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층이 확대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 유출이 늘어나 도시 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 침투·저류 능력을 회복하고, 도시 물순환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환경부 2016년 공모사업에 전국 5개 도시가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광주시 전역에 대한 물순환 현황을 분석하고 물순환 개선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시범사업 완료

후 저영양개발 기법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장기적 시행방안, 연차별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담았다.

투수면적과 녹지공간을 확대해 강우 유출량을 줄여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이번 사업과 광주 온도 1℃ 낮추기 사업을 연계해 도심 열섬을 방지하고, 초기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원이 토양 침투과정에서 정화돼 지하수를 충전하고, 수질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 자치구, 교육청, 도시공사 등과 함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업팀'을 구성하여 관련 제도 마련, 공사 적용, 유지관리 등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빗물 침투시설 등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은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광주시 전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며 "빗물 한방울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1석5조의 효과를 내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 전역(498.3㎢)의 불투수면적은 26.6%이며 이는 서울 54.37%, 부산 30.3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꾸준한 나무심기를 한 대구는 불투수면적이 23.24%였고, 인천 22.30%, 대전 21.99%, 울산 17.22%, 세종 12.41% 순으로 비율이 높다.

광주지역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구(47.3%)의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고 북구(28.7%), 남구(24.4%), 광산(23.2%), 동구(19.0%) 순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동구, 광주 첫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

광주시 동구는 "지난 12일 광주자치구 중 최초로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대선 공약이자 민선7기 공약실천 1호인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치매상담 및 검진,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교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치매환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도 실시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치매는 환자 가족들

만의 책임이 아닌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치매안심센터가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동구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2월 임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를 창업지원센터(구 벤처빌딩) 7층을 리모델링해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대회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춰 정식 개소했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 올 하반기까지 신속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파라과이 대사 접견 소방차 지원·교육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라울 실베로 살바그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를 접견하고, 소방차량, 장비, 기술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국과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방차량 지원, 파라과이 소방관 광주교육 등으로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소방본부는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교류에서 양국이 서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울 실베로 살바그니 대사는 "광주시가 소방차량과 장비 등 지원에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장비, 기술 교류 등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파라과이에 소방펌프차·구급차 등 총 6대를 무상 지원하고 현지 교육으로 화재진압 등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또 2019년에도 8대 등을 추가 양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산구에 우즈베크 노동부 사무소 개소.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다섯째)이 지난 12일 오후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5층 강당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쉐조드 쿠르디예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여섯째), 등 내빈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우치공원 을 방문객 100만명 돌파하나 상반기 46만명 찾아 인기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가 자리한 우치공원이 광주 시민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5만 5000명이던 우치공원 방문객이 올 상반기에만 46만 5000명으로 늘어나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방문객 100만명 돌파가 기대된다.

이는 우치공원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에 동물원과 놀이시설이 함께 있고, 공원 내 녹지공간이 잘 보전돼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심 휴양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면서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의 단체 방문이, 주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15년 5월 우치동물원을 무료 개방한 이후 조경·휴양시설 확충 등 관광한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시장애인지원센터 장애 인식 개선 전문가 과정 교육

광주시장애인지원센터(상임이사 김갑주)는 13일 오후 광주시 5·18교육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 전문가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장애 인식 개선 강사 1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박찬동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장이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 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교육 이후 학습동아리 모임을 조직해 지속적으로 학습해 지역 내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 공감 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김갑주 시장애인지원센터 상임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지역 장애인 공감문화 이르고 갈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복지 36.5℃ 실천사례 공모전...내달까지 접수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장정)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복지 36.5℃ 복지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시민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을 격려하고 당선작은 행복한 복지공동체 광주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지실천사례"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지종사자(공공, 민간), 자원봉사자, 사회공헌자, 마을활동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복지현장에서 겪은 마음 따뜻한 복지실천사례를 자유롭게 작성해 참여하면 된다.

응모작은 A4용지 2매 내의 분량으로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gjwf@hanmail.net)이나 우편(광주광역시남구 덕남길7 광주복지재단 문화관1층 복지사업팀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3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만원, 우수상(3명) 각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현 대표이사는 "복지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감동 스토리, 에피소드 등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면서 "복지실천사례 공모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03-8342.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비금도 옆에 "팻섬"

있는 단독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 010-6834-7400

문의.010-3605-5000